

# ‘답답한 고3’ 올해 수능 어떻게 하나?

### 오는 24일 ‘학평’ 원격수업 프로그램으로 시행

### “결국 성적 통계 없는 시험으로...의미 전혀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 형태로 이뤄져 전국단위 공동 채점과 성적처리를 하지 않는 ‘3월 전국 연합학력평가’(학평)가 고3 학생과 수험능력시험 출제자들에게 크게 의미없는 시험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교육부 지침상 등교가 불가해 예정된 날짜에 학평 시행이 곤란하고 각 시도 교육청 협의 결과 학사일정 부담 등 이유로 순연 실시도 어렵다고 판단, 24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 프로그램으로 3월 학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3월12일 시행 예정이

었던 3월 학평은 4차례 연기된 끝에 24일 진행된다. 하지만 학생들은 시험지를 배부 받아 가정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에 대한 정답과 해설은 시험 당일 오후 6시 이후 공개하지만 전국단위의 공동 채점과 성적처리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그동안 시험이 4차례 연기되더니, 결국엔 성적 통계가 없는 시험이 됐다. 3월 학평은 자신의 점수보다, 전국에서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성적 통계가 없는 3월 학평은 의미가 전혀 없다”며 “애초 3월 학평으로 인해 학생들

이 정시와 수시를 결정했는데, 자료를 통한 수능 로드맵 수립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이번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다”며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따라서 2학년의 성적을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시나 정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임시전 연구소 소장은 “전에는 3, 4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수시, 정시 선택을 판단했다. 하지만 시험이 미뤄진 가운데 성적처리까지 하지 않으면서 이번 학평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곤란해진 것은 고3 학생들만이 아니다. 올해 수능 문제 출제자들도 난감해졌다. 성적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올해 수능 문제 출제 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올해 수능은 교과서 바뀌고 나서 치르는 첫 시험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문·이과 시험 범위가 바뀌었다”며 “출제자 입장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하기 어려웠다. ‘자칫 수능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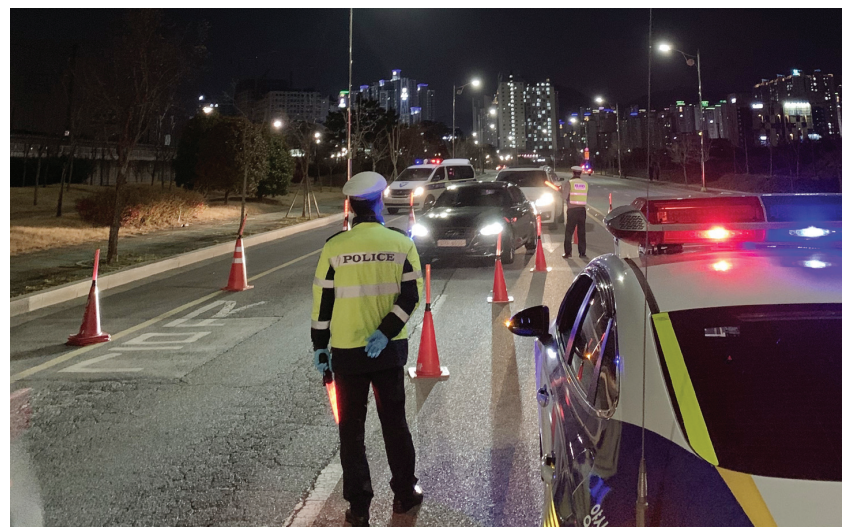
3월 학평이 의미가 없어진 가운데 임 대표는 “상위권 학생은 자기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재수생과 겨룰 수 있는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EBS 변형문제에도 빨리 적응해야 하며, 내신을 관리한 학생들은 1학기 중간·기말고사 등 교과 성적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위권 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까지 수능 진도를 끝내야 한다. 먼저 수능 시험 범위를 마스터하고, EBS 변형문제를 통해 시험에 적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현재지점으로 고3 학생들이 분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다. 혼란스럽겠지만 의기소침하지 않고 대학 진학하기 쉽다는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원격수업 프로그램으로 3월 학평이 진행되자, 일부에서는 재수생에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남 소장은 “재수생들은 고3 학생들보다 2월부터 상대적으로 집중도 있는 수업을 배울 수 있었다. 고3 학생들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임 대표는 “재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3 학생들과 점수를 할 수 없어 누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교과서가 바뀌기 치르는 첫 수능인 만큼 유형 자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사고·사상자, 2·3월 ‘급증’

작년 2월 39건→올해 2월 64건 ‘대조적’

사상자수 작년 59명서 116명으로 크게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월부터 광주지역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기적으로 지속하던 음주단속이 느슨해져 자칫 음주사고가 폭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의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1월 39건에서 2월 6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1월 39건에서 2월 30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수치이다. 지난해 3월 역시 37건으로 30건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3월은 59건으로 29건이나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월 사상자는 73명(사망 0명, 부상 73명)이었고 올해 1월 역시 전년 동기와 비슷한 74명(사망 0명, 부상 74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부터는 확연한 차이가 났다. 광주에서는 2월4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사상자 59명(사망 0명, 부상 59명)에 비해 올해 2월 사상자는 116명(사망 2명, 부상 114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3월은 사망 1명, 부상 66명으로 사상자가 67명으로 집계됐지만 올해 3월은 사망자 5명, 부상자 97명 등 102명으로 35명 늘어났다.

2월과 3월 중순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비대면 단속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차단한 ‘S시험 트랩’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3월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391건으로 작년 동기 282건보다 100여건 늘어났다. 경찰청은 느슨해진 음주운전 단속 분위기를 틈타 교통사고가 증가한만큼 단속을 한층 강화해 사고 확산 방지에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일부 시민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보석 석방’ 구치소 나서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광훈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 국내 ‘코로나19’ 겨울철 또 대유행할 수도...정부 “대비할 것”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꺾였지만, 정부는 앞으로 더 잠잠해지더라도 겨울철 또 한 번 큰 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좋아지는(환경이) 되고 밀폐된 환경 속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히 ‘코로나19’에 이

같은 경계심을 갖는 이유는 ‘코로나19’의 매우 센 전파력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만 확진자가 1만명 넘게 발생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230만명이 넘었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많은 전문가들도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빨리 종식되기는 어렵고, 바이러스 특성

자체가 경증이나 무증상에서도 전파가 되는 등 전파력이 크다고 본다”며 “감염 이후엔 면역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종식시키기 어렵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역력 형성이나 유행의 정도 등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몇 년간은 유행이 계속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자가격리 위반 중대범죄...엄단 방침 유지”

경찰이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감통 경찰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중대)범죄. 엄한 처벌받는다”고 의식하고, 국민들 몇 년간은 유행이 계속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확산 위험을 막고 조속히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고의로 법령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는 사범은 구속수사 등 엄중수사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